

제Ⅶ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1. 종합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1. 종합 및 시사점

1) 분포현황

- 수치상으로 나타난 구시가지의 문화자원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연장의 경우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를 통해 수상공연장 조성으로 앞으로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공연장 계획이 있어 공연장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화의 중요성 증대에 비해 문화시설의 수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주시 구시가지의 경우 문화생산과 전수시설이 대부분 구시가지를 제외한 외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다른 지역의 경우 문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 점차 문화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전반의 흐름으로 인해 지역생활을 기반으로 한 문화기반 또한 크게 확충되고 있음에 비해 공주시 구시가지의 경우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 문화가 강조되는 현실은 단지 시설의 확충에만 있지 않음. 문화의 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조성 및 특구 조성 등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지역의 경우 거리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 문화의 거리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지역의 가로명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 문화의 거리는 그 디자인을 개선하고 문화시설을 집결시키는 한편,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문화의 거리로서 그 위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공주시의 경우 구시가지 대부분 지역이 공주고도보준계획 사업(시범)지구내 지구 지정 지역으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9조(고도보존계획)에 의해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구시가지 공주고도보존지구는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르별 분포현황 및 동향

(1) 역사문화

- 공주시의 역사문화는 그간 폐망한 국가로서 지역에서만 관심이 있는 소외의 대상이었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백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역사문화에 있어 커다란 흐름은 복원과 가치의 현재화로서 복원의 의미는 단지 특정한 대상을 과거의 것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며, 무엇보다 지

역 가치 자체, 구성 자체를 역사성에 기준을 두고 돌려놓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 공주시 구시가지의 경우 역사문화보존지구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고개 정비, 가로경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다른 한편, 과거의 의미를 현재화하려는 노력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과거의 단절된 역사로 남아 있는 '박물관'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현재 사회와 공간 속에 그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정책동향이자 방향인 것이다.
- 공산성에서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인 구읍사무소를 문화공간, 즉 전시장, 아뜰리에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시장

-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시장의 특징은 도심을 중심으로 한 문화축의 형성, 시장화의 현상, 밀집화·집중화 현상 등으로 요약된다.
- 그러나 공주시 구시가지의 경우 문화예술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예술생태 측면에서 보면, 주요한 창작기능은 과거에 구시가지가 문화 생산의 중심지에서 현재는 공주시 외곽 지역으로 대부분이 옮겨진 상태이며, 지금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전시와 교육의 기능 일부분 수행되고 있다.
- 시각예술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시가지에 2곳의 화랑에서 전시·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작품 활동은 공주시 외곽에서 하고 있어 창작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특히 미술관·갤러리 등은 전무한 상태이다.
- 문화예술시장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시장화의 현상은 전용공연장의 등장, 화랑 및 경매장의 활성화, 영화체인망의 확산, 서점의 대형화·체인화, 복합공연장의 등장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구시가지의 경우 영화관 조차 신관동 쪽으로 이전되면서 전체적인 문화예술시장이 낙후한 상태이다.
- 과거 공주사대 부설중고교 앞에서 의료원교차로에 이르는 길을 따라 영화관, 소극장, 서점 등의 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업하고 문화예술시장은 침체된 상태이다.

2. 정책제언

1) 정책방향 1 : 문화예술 시장기반의 강화

- 공주시 구시가지의 문화예술 시장기반은 예술시장을 형성하는 기초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한편 시장 자생력을 강화시킬 지역작물리적 환경 또한 취약한 상태이다.
- 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형성하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문화와 예술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요한 정책방향은 창작기반 조성, 공연시설 건립, 밀집지역 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공공 공간 이용 창작기반 조성

- 공주시 구시가지의 창작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공공용도의 창작시설이 거의 없어 대부분 시 외곽에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구시가지내에 창작시설의 건립이 요구된다.
- 창작공간의 확보는 공공용도의 창작시설 건립, 기존 시설을 이용한 창작 공간의 조성,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창작공간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예술가가 운영하고 있는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특히 기존시설, 즉 문화예술회관 등을 이용한 창작공간 조성 및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공간 내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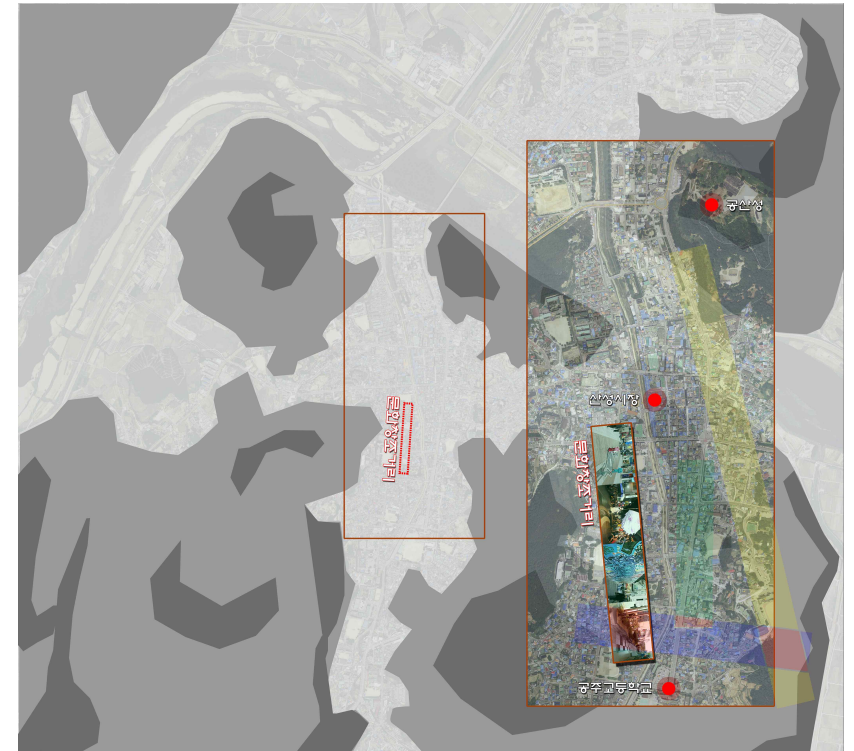
|| 공연시설 건립

- 공주시 구시가지 문화시설 건립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공연에 필요한 공간을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한 오페라나 팝 아티스트의 공연 등은 주로 공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민의 복지 차원에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문화예술시장의 자생력 측면에서는 저해되는 요인이다.
- 따라서 문화 수요를 고려하여 구시가지에 소규모나 중규모의 전용공연장 건립을 통해 연극, 소규모 공연 등이 다채롭게 공연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방안으로는 서울의 원각사보다 2년 앞서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으로 전해지는 공주 부호 김갑순에 의해 건립된 금강관을 복원하여 전통성을 계승하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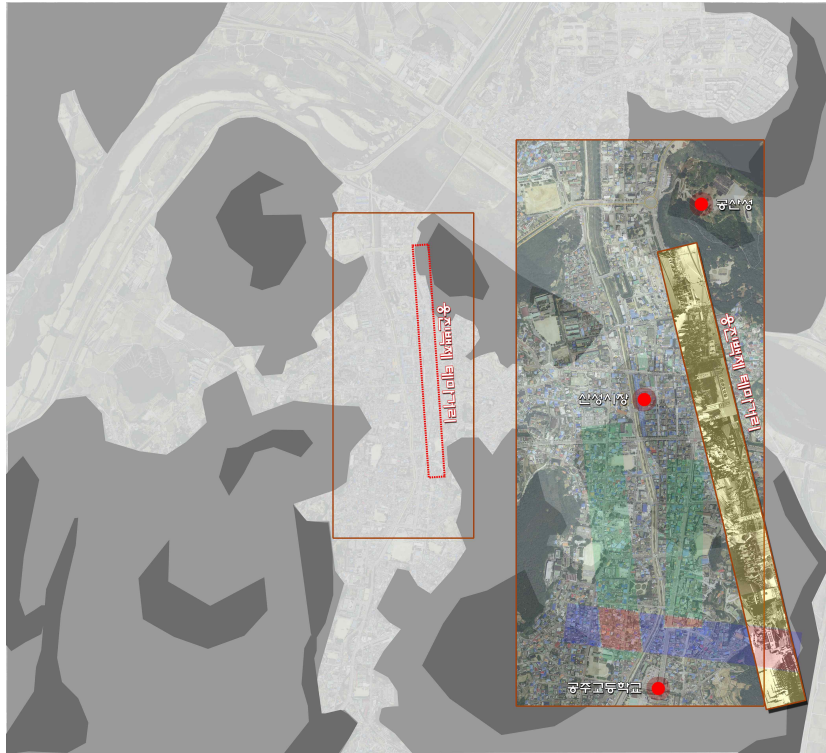
안과 영화관으로 사용되다가 폐관되어 있는 영화관 부지를 활용하여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밀집지역 조성

- 문화예술시장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밀집지역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의 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시설의 집적화 필요가 있으며, 유사시설의 밀집지역 조성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 감영길에서 청소년문화센터에 이르는 길을 문화예술창조거리를 조성하여 화랑과 갤러리 조성, 미술, 공예 아뜰리에 거리 조성을 통해 시각예술의 창작기반 제공과 문화예술창조거리 조성



【그림 VII-1】 문화창조거리



【그림 VII-2】웅진백제 테마거리

2) 정책방향 2 : 삶과 함께하는 문화환경 조성

- 문화환경 조성 차원에서 공주시 구시가지에서 추진해야 할 두 번째 정책방향은 지역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 내에서 문화적이고 미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컨대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미학적으로 개선시켜준다면 자그마한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현재까지 공주시 정책은 문화는 문화의 한 장르로서 독립시키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던가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던가 하는 정책이 주요한 정책들이었다.
- 그러나 현재에 있어 정책은 문화가 독립된 정책이 아닌 각 영역에 투입, 반영 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예컨대 지역을 미학화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나 가로 환경을 미학화시키는 도시갤러리프로젝트, 디자인 가로 조성 등은 바로 그와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문화환경이란 삶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으며, 삶 자체가 문화환경이 되었을 때 문화적인 도시가 됨. 그런 점에서 지역 환경 자체를 미학화·예술화·문화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구단위 문화환경 조성-문화거리만들기, 생활 속 작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Ⅵ 지구단위 문화환경 조성

-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와 지역민의 관계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 지역성과 위배된다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환경을 오히려 훼손한다던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다른 한편 지구 단위로 문화환경을 진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기반의 문화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구 단위의 진단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 특화된 전략 속에 문화환경을 갖추고 지역을 마케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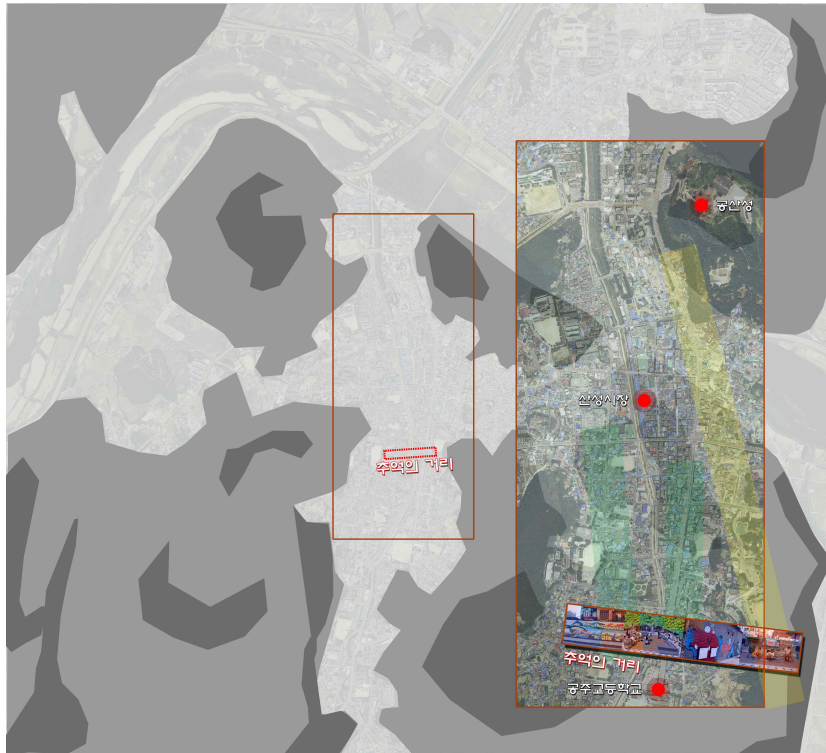
Ⅵ 생활 속 작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 다른 한편 생활 속 곳곳에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작은 문화공간 만들기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대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빈 공간, 공원, 낙후된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전시와 공연이 가능하고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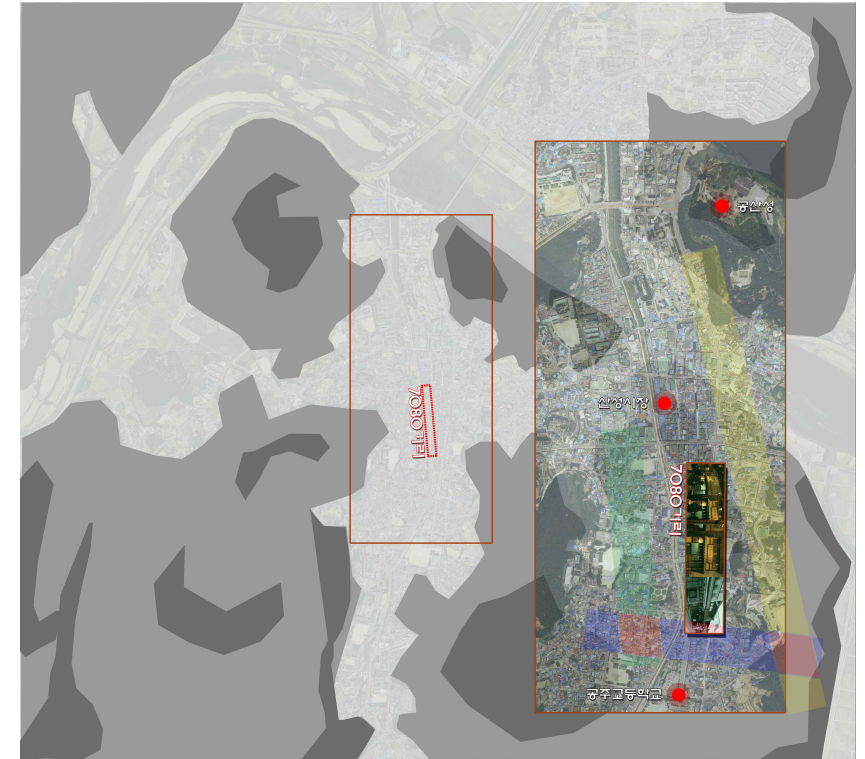
VII. 시사점 및 정책제언

시민들이 쉽게 나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요구된다.

- 특히, 공주시 구시가지의 경우 교육과 행정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인 하숙생 문화와 음식 문화 등이 발달된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문화거리 조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하숙생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여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침체되어 있는 대로변 뒷골목 상가 지역을 근대문화 거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산성시장에 길거리 3D 미술을 통한 명소화 전략을 수행한다.
- 또한 지금은 직장인밴드, UCC 동아리 등 아마추어 문화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태다. 그런 점에서 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작은 공간 조성과 아마추어 활동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VII-3】 추억의 거리



【그림 VII-4】 7080 거리

